

법회안내

성수스님(법수 선원 조실) 8일 오전 11시 부산 용궁사 초청법회. (051)722-7744

해장스님(고성 건봉사 주지) 12일 오전 10시 30분 동산교역불안정국염불만일정법회. 매일 양력 1일 오전 10시 간성 건봉사포교당 법회.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0392)682-4946

지도스님(관오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일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인등법회.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매일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매일 첫째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정법회. (053)784-3669

현수스님(용문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일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042)585-6803

해인스님(불심사 주지) 매일 음력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초삼일법회 정진회. 매일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선지도 법회. 신행상당. (02)907-1643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무료급식... '쌀·봉사요원 모자라요'

'아침을 여는...' '보현의 집' 등 동참인 기다립니다

IMF구제금융이후 실직한 사람들이 곳곳을 잃은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점심조차 거르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무료급식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면 한꺼번에 수백명씩 몰려드는 사람들에 비해 자원봉사자도, 쌀도 반천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무료급식사업 후원에 동참해 보자. 경복권이 서소문공원에 개설한 '아침을 여는 사람들(02-3417-2800)', 맑고향기롭게 제기동 보문선원에 문을 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02-741-4696)',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현의집' '영등포근로자합숙소' '탑골공원무료급식소'(02-723-5101) 등을 찾아 직접 자원봉사를 하거나 쌀이나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무료급식소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행행동이다. 사진은 무료급식에 나선 천태종 자원봉사자들. 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실직자가정을 위한 자비와 쌀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02-720-6564) 이밖에 교계에서 운영중인 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또는 후원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신행수첩

직장인을 위한 선의 향연 삼보회 여름불교대학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도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삼보회에서 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8월까지 매주 일요일 열리는 여름불교대학은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비롯,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보살행의 길', 권기종교수(동국대)의 '대승사상', 프랭크 테데스교수(세종대)의 '불교의 생명윤리', 최봉수교수(동국대)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됐다. (02)913-2859

계 신행출가수련법회를 갖는다. 이번 하계신행출가수련법회는 28일~31일과 8월 6일~9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 선의 이론과 실제에서부터 운회와 인연, 기도하는 법, 예불의식, 발의식의 등 기본적인 교리와 의식도 배우고, 사경법회로 신심을 증장시키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또 환경보호와 행복의 법칙에 대한 강의도 마련돼 신행출가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일상생활속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0346)555-5974

에이블·기도하는법 배우자

보통사 출가수련법회

에이블·기도하는법 배우자

보통사 출가수련법회

계시관

사운드교실, 현장학습 체험 등 다양하다. (02)282-1100

체제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 활동할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42)716-4215

10일 오전 10시 생전에수제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지역 노인 2천여명을 초청해 경로시집발간식도 갖는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목장승 4기를 보광사 인근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줄을 당겨 세우는 장승제를 실시하고, 이후 보광사 앞뜰에서 농악대와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펼친다. 이와 더불어 도에가 서종훈씨의 도판전과 설치미술전도 열릴 예정이다. (0392)33-2920

자연속에서 심신단자

혜명선원 명상수련회

휴가를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단기출가수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화사 혜명선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계 법안명상수련회'를 실시한다. 이 수련회는 참선 명상 수련을 하면서 색다른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연속에서 수행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은 자기앞에 담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것이다. 1차 수련회는 17일~19일에, 2차 수련회는 8월 14일~16일 각각 열린다. (0415)867-4000

은달 생각해보는 죽음관

불자권 수의문화세미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는 10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한국 유네스코 문화교류센터에서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은달에 돌아온 한국인의 죽음관과 수의문화'를 주제로 교계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은달과 수의문화에 관한 체계적인 조명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송호수박사(개천대학 학장)가 '한국인의 죽음관과 수의문화'를, 광명승교수(세종대)는 '수의문화 및 수의복식의 소고'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의복식에 관한 발표와 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수의복식의 변천 및 발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02)723-6258



나의 수행일기

뚜덕 뚜덕 툭 툭... 장단 맞춰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를 도심 속에서 듣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햇살이 환하게 퍼지는 날에 느끼기 못하는 깊숙한 내면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분위기를 지어준다. 생전에 불교와는 무관하셨던 어머니를 그나마 돌아가신 후 돌아오면 지난 날들의 우여곡절은 결국 이 길로 오기위한 필연이었다는 느낌이 저절로 드는데 비록 약개는 살지 못했어도 다행스럽게 허송세월은 하지 않은 덕분에 부족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사랑을 일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인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구나 더욱 가슴 벅찬 것은 아직도 긴 잠을 자고 있는 아름다운 불교문화에 대해 새롭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시각화하여 드러내 펼칠 수 있는 내 역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금강경 독송·사경 '하루가 충실'

참자는 불교문화 시각화... 나환자촌 봉사도

으로 산길을 오르며 절을 찾아 49재가 끝나도록 108배를 작정을 하고 다녔다. 중학교 때 영세를 하고 마침내 무관심해졌던 종교적인 회의와 갈등은 그 무렵 불교라는 매력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말 수련을 다녀와서 더욱 절실함을 느낀 좌선공부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자신과의 긴 싸움은 새롭게 시작한 또 하나의 절거은 도전이며 그 동안 익혀왔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미처 봉



알림

△어울림 이유회=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어울림모임 이유회를 24일 떠난다. (02)852-625

강좌

△아동방학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을 위한 여성문화교실을 연다. 양재, 홍대, 인형, 스텐실, 포크아트, 서예, 컴퓨터교실 등. (0551)31-8017

답사

△낙산사·건봉사=국토문화순례 터사당은 11일~12일 양양 낙산사와 의상대, 통일신라선종세력의 근거지였던 선림원터와 진전사터, 건봉사를 순례한다. (02)282-3097

모집

△소적새마을 후원인=소적새마을은 쌀, 부식, 비누 등 생활품 후원자 후원금을 기다린다. (0371)762-9870

身土不二的 企業 (株)興國農産

Advertisement for Hwangok Nongsan products. Includes images of products like 'Hamyangsan Tongjong Honghwasida' and 'Hodugi-gom' (호두기름).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se products, such as being natural and healthy. Contact information for Hwangok Nongsan is provided at the bottom.